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자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키가 큰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작고 부족하고 평범해 보일 때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가 겉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크고 강한 장수였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여겼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무기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칼도 창도 아니었습니다. 물매와 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자 작은 돌 하나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적, 친구관계, 비교, 실패, 두려움이 나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이루십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 예배 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단 한 분이시라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상 17:41~58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을 보는 눈	설	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단 한 분이시라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와 두려움이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과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작은 믿음으로도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나요?
2. 지금 내 삶에서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